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자연의 순리와 변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인디언족에게 12월은 '다른 세상의 달' 또는 '침묵의 달'이다. 12월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준비하거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조용하게 차분하게 지내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2월이면 마음이 더 조금 해지거나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진다. 도대체 그 많던 시간은 어디에 다 썼으며, 굳은 결심으로 세웠던 계획들은 기억조차 희미하니 어찌 된 일인가 싶은 것이다. 여느 다른 달들과 같은 속도로 12월의 시간도 흘러가는 것이 틀림없는 일인데도, 항상 12월은 더 짧고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결국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말을 쏟아내며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루에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기

도 몇 번씩 약속을 잡는 바람에 우리네 12월은 침묵의 시간으로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낡은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쯤은 누구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안다. 그럼에도 낡은 것을 비우는 일은 언제나 어렵다. 모든 낡은 것에는 낯익은 것이 주는 익숙함과 편안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털어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낡은 생각과 오래된 습관, 몸이 밴 태도일 것이다. 생각과 습관은 긴 시간에 걸쳐 낡아 갈수록 친밀해지고 익숙해져서 '나 자신'이 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견고한 틀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통제한다. 이런 의미에서 낡은 것이 주는 익숙함과 이별하기는 불편하고 두려우며 고통스러운 일이다. 낡은 것과 이별한다는 것은 곧 지금까지의 익숙하고 편안했던 내 모습과 결별하고 새롭고 낯선 나를 찾아가는 불편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익숙함에 길들여진다. 하지만 익숙한 것을 떠나지 않고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없으니, 언제나 마무리는 마침표를 찍는 끝맺음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다른 표현이라 하겠다.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는 일은 단순히 불편하거나 고통을 감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 과정이 개인적인 영역의 일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문제일 때는 더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경우가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1473-1543)다.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겸 성직자로 천년 넘게 세계를 지배하던 천동설이 옳지 않다는 주장을 쓴 책을 펴 낸 첫 번째 학자다.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일이지만 당시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돈다는 천동설이 절대 진리이자 신의 은총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표였다. 지구는 신의 손길로 직접 창조된 인간들이 사는 곳이어서 전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생각은 과학과 이성이나 리지마의 신앙의 문제였다. 여기에 천동설의 진짜 의미가 있다. 이런 뜻에서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고 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모두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생각과 태도에 대한 단호한 결별의 차원을 넘어서 세계를 지배해 온 절대 권력과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혁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지지한 지오르다노 브루노

(1547?-1600)는 일반 재판이 아니라 종교 재판을 받은 뒤 절대자의 뜻과 섭리를 부정한다는 죄목으로 화형까지 당했다. 그럼에도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은 모든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는 물론 인류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존의 낡은 틀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사고를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한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해서 반드시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역사적 일이거나 사회적 결단이여야 할 이유는 없다. 견고하게 굳어진 낡고 익숙한 틀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내는 선택이라면 작고 개인적인 일 또한 위대한 전환이다. 너무나 익숙해서 낡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만큼 정제된 나와의 과감한 이별을 통해서만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할 일은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낡고 익숙한 것들과 이별하는 것,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습관의 길로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다. 새로운 시도, 새로운 계획으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차분하게 준비하기에 12월은 더없이 좋은 달이다.

꿈꾸는 2040



이재웅
위민연구원 이사·광산구청소년수련관장

민주주의라는 말의 대체어로 무엇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딱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다. 민주주의란 말이 너무 흔하게 사용되어 구시대적 언어 같아 다른 대체의 말을 찾아 쓰고 싶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말을 찾아 쓰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민주주의의 사전적 정의는 '국민이 권력을 가진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은 집단적 저항으로 권력과 맞선다. 여기까지는 지난 근대화 과정에서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나라에서 슬하계 경험한 일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당신의 직장 내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궁금해졌다. 우리가 흔히 직장에서 일어나는 '갑질 문화'라고 부르는 것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방공 회차' 조현아부터 '물 컵 투척' 조현민에 이르기까지의 대한항공에서 벌어진 문제가 단순히 갑과 을의 문제인가? 또한 대한항공이라는 기업만의 특수한 문제일까? 선뜻 '그렇다'라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이유이다.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슬하계 벌어진 일이고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찾아오면 수많은 저항과 투쟁을 통해 민주화가 되었는데 왜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추어 서 있을까?

우리가 근대 문화를 이야기 할 때 계급과 서열 그리고 상명하복으로 대표되는 데 우리 직장이 근대와 닮았다면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직장은 근대와 닮아 있는 것이 많아서 너무도 많다. 학교의 세 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 사치를 이루어 나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교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학교도 그렇고, 창업자의 유현인 '무노조 경영'을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삼성

으로 대표되는 대기업 문화를 생각해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노조 문제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노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최소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런 보호막 없이 직원 개개인이 스스로를 지키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데는 개인의 용기뿐 아니라 제도적인 장치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직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인준하는 '가족친화 인증'과 같은 '민주적인 직장' 인증제를 시행했으면 한다. 2008년 처음 가족 친화 인증제를 운영할 때 자녀 출산이나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등 가족 친화적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했다고 한다. 물론 운영 초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가 2017년 중앙부처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을 가족 친화 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제도가 강화되었고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인증을 받게 됐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768개 의무 대상 공공기관 중 750개가

인증 받았고 전체적으로는 2802개에 이르렀다. 한번 인증을 받았다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증제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순간은 재인증을 받을 때이다. 처음에는 조금 쉽게 인증을 받게 해주더라도 재인증을 받을 기간동안 기본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모 든 인증제가 그렇듯 회사 차원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는데 그 사회가 '이런 것도 좀 하세요'하고 요구하는 항목들이 다. 직장 민주주의도 각 직급 간에 간단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직급 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사회 등에 '어필'할 수 있는 제도나 절차를 갖추게 할 수 있다. 물론 직장 민주주의의 표준 매뉴얼 같은 경우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만들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에너지를 쏟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국가의 민주주의를 넘어 직장 민주주의로 일상생활이 바뀌고 직장 다니기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5·18 계엄군에 수익 보상금까지 지급했다니

우리는 지난주 5·18 계엄군 73명이 국가 유공자로 지정돼 있는 데다 이 중 30명은 지금까지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들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에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벌을 받아도 사원치 않을 가해자들이 피해자들과 똑같이 유공자로 지정돼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한데 이번에는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연금에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게 지급된 것보다 1인당 평균 다섯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나라 꼴이 아무리 엉망이라 해도 어찌 이럴 수가 있는지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유공자로 등록된 5·18 계엄군 73명이 지난달까지 지급받은 보상금과 연금은 모두 164억2300여만 원인 것

으로 밝혀졌다. 1인당 평균 2억2400만 원 정도가 지급된 것이다. 반면 1991년부터 최근까지 5·18유공자 5800여 명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모두 2510억 원으로, 1인 평균 4300여만 원에 불과했다. 희생자보다 가해자가 더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게 나라인가'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이와 관련 5·18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사회·구속부상사회)는 성명을 내고 "가해자들이 국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무고한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군인들이 버젓이 국가 유공자로 대우 받고 있는 사회를 어찌 정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을까. 정부는 이제라도 5·18 가해 군인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훈·포장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를 철회하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시혜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광양시 인구 정책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아닌가

전남 지역 일부 시군이 인구를 늘리기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 할당을 주고 실적 보고회까지 여는 등 무리한 추진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실적 압박을 느낀 공무원들이 자인을 자신의 집 주소로 옮겨 놓는 등 불법 위장 전입까지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광양시는 2년 전부터 인구 증대를 위해 공무원들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며 전입 활동을 독려해 왔다. 관내 기업과 공공 기관에도 근로자 전입을 적극 권유했다. 공무원에 대한 가점 부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사상 형평성을 들어 시정을 요구하자 지난 7월 중단했지만 전입 인구 할당은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그 덕분에 광양시 인구는 지난 달 말 15만 3140명으로 전달보다 1242명이 늘었다. 문제는 주민 수가 연말이면 1000여 명가량 늘었다가 다음해 연초가 되면 그만큼 줄어드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인근 순천시에는 최근 인

구가 갑자기 줄어들자 조사에 나섰는데 상당수가 광양시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게는 2세대, 많게는 8세대가 같은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해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인구 자체가 경쟁력이라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주는 행태는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였다. 저출산 고령화 가속으로 지방 소멸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위장 전입 등 불법이 판치던 통계의 왜곡과 함께 보육 등 인구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혼선만 줄 뿐이다. 인공 지체와 같은 등 부작용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광양시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 할 게 아니라 외지인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조 14년(1636년) 발발한 병자호란은 치욕스러운 전쟁이었다. 조선에 군인 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한 청나라 태종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물밀듯이 한양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전쟁에 불비했던 조선의 운명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을 당했다. 전쟁의 대가는 가혹했다. 오랑캐라 업신여겼던 청과 군인 관계를 맺었고 매년 조공을 바쳐야 했다.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은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가는 운명에 처해졌다. "청강(淸江)에 비 뜬 소리 그 무엇이 우습관데/ 만산홍룡(滿山紅隴)이 휘두르며 웃는고야/ 두어라 춘풍(春風)이 몇 날이리 웃을 대로 웃어라." 훗날 효종이 된 봉림대군은 청나라에 잡혀갔을 때 지었다는 '청강에 비 뜬 소리'라는 작품이다. 왕자의 지위에서 적국의 볼모가 된 비통한 심사가 담겨 있어 읽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다. 볼모는 약속에 대한 담보로 상대국에 억류된 사람을 일컫는다. 역사에 따르면 후삼국 시대 왕건과 견훤 사이에도 서로 볼모를 보낸 적이 있다. 고려 시대에는

몽골과의 전쟁을 끝내면서 원나라에 왕족과 관원의 자제들을 보내기도 했다. 외견상 강화(強化)를 촉진한다는 증표지만 수치스러운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유치원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발의했던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아이들을 볼모로 한 일부 사립 유치원들의 폐원 협박에도 한국당은 법안 통과에 반대한다. 최근 택시 단체들의 파업도 시민을 볼모로 한 집단이 기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카카오톡'에 반대하는 명분이지만 카톡을 누를 만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지구 노력 이 먼저일 텐데 말이다. 한 해가 끝나가는 세밑, 이제는 불붙여 있는 불모들을 풀어 주어야 한다. 청나라에 있던 봉림대군은 '청강에 비 뜬 소리'에서 "빗소리에 온 산을 뒤덮은 푸르름이 자지러지게 웃지만 그대로 두어라. 봄 바람이 며칠이나 가겠느냐"며 웃는다. 그렇다. 지금 누군가를 볼모로 잡고 있는 이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봤으면 한다. 그 세월이 얼마나 가겠는가. 언젠가는 거꾸로 당신들이 볼모가 될 수 있을지. /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고



홍기원
광주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내 고향 광주는 삼한시대에는 마한에 속했다가 백제가 건국하며 무진주로, 남북국시대에는 무주로 불렸다. 이후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도읍이었다가 지금의 광주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고려 태조 때인 940년부터였다. 광주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수운이 발달하고 드넓은 곡창이 있는 나주에 밀려 큰 도시는 아니었다고 한다. 1896년에 전국 13도제가 실시되고 나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광주는 나주의 행정 그늘에 묻혀 있었다. 해방 이후 광주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1949년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광주시(光州市)로 개칭되었으며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과 상업의 중심 기능을 했다. 한국전쟁 때 육군훈련부대가

함께 잘사는 광주를 위해

상무동에 자리한 뒤로 광주는 전라남도 의 행정, 상업, 교육의 확고한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결정적으로 여수와 순천, 목포를 잇는 호남선과 1970년대 호남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명실상부 호남의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 1973년 구제(區制)가 실시됨에 따라 광주는 기존의 6개 출장소를 통합해 동구·서구를 신설하고 이듬해 장성군 일부를 편입해 북구를 신설한다. 1986년에는 직할시로 승격되었으며,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을 흡수해 광산구(光山區)를 신설, 현재의 5개 자치구 체제가 완성됐다. 이렇듯 광주는 그 명칭과 범위를 끊임 없이 달리하며 변화를 거듭해왔다. 행정 구역의 변경은 도시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도시는 어떤 고정된 형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생산 시설과 교육 시설이 들어서고 새로운 거점이 생겨나는 과정에서 인구가 유입·유출되며 끊임없이 그 영역을 확장·축소한다. 한때 민주화의 심장이자 광주 경제를 이끌었던 금남로·충장로가 1990년대 쇠퇴의 길을 걷자 상무 지구와 수완 지구가 신도심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다 최근 원도심 곳

곳에 재개발과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예정되면서 또다시 무게추가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시는 신진대사를 하는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도시를 지속되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광주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일 뿐 아니라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다. 그 대표성은 비단 인구의 절대 규모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습득된 민주·인권·평화 정신이 지역의 큰 자산이 되어 호남 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됐다. 이렇듯 우리 빛고를 광주는 선조들이 남긴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바탕으로 선순환하며 발전하고 있다. 옛 전남도청 일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탈바꿈해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비상을 꿈꾸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구간 경계 조정은 단순히 국회의원의 석수와 의원 수 유지를 위한 게리맨더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동구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는 재정력 약화와 더불어 국회 예산 교부 시 불리함으로 작용해 공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한 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광주시 미래 성

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또한 인구가 밀집하면 행정력의 분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자치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평균 328명인데 반해 동구는 157명, 북구는 403명으로 북구가 동구의 약 2.8배 많은 수를 감당하고 있다. 인구가 과밀하면 주민 1인당 지출 예산이 줄고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물론 업무 담당자의 꼼꼼한 일 처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진다. 하지만 산소와 수소의 결합물이라는 본질은 변함이 없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른 구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는 줄 안다. 하지만 광산구민도, 동구민도, 북구민도 모두 이곳 빛고를 광주에 속하는 시민이라는 본질은 같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열섯말은 '함께 잘 사는 국가'라고 한다. 우리가 그 토록 자부하는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가 깃들어 있는 이곳 빛고을에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 방안은 무엇인지 모두의 해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자사 지국(국동 신형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율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FAX 222-8005)	(FAX 222-0195)	(FAX 222-0195)
편집부 220-0632	여 론 매 체 부 220-065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처 부 220-0663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전 남 본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